

데스크 시국



장필수
제2사회부장·편집부국장

‘동학개미’와 ‘주린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 열풍 속에 등장한 대표적인 신조어다. 동학개미는 외세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에 빗대 코로나19 폭락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끈 개인 투자자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로 초보 주식 투자자를 말한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개인투자자(개미)라는 점이다. 두 신조어가 최근 조명을 받는 것은 개미들이 주식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3대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미들이지만 그동안 개미들이 주도 세력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610만 명이던 개미들은 1000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한 달 만에 이들이 사들인 주식 매수액은 무려 26조 원에 달한다.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몰리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에선 동학개미와 같은 의미의 ‘로빈후드’가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고착화된 저금리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개미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지난해는 대세 상승장이어서 주린이라도 웬만한 이익을 냈지만, 올해는 스마트 개미들조차 수익을 내기가 만만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미 입장에서 볼 때 주식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자금이나 정보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데다 매매 기법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매매 기법의 하나로 공매도 제도를 들 수 있다.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그 만큼 사서 되갚는 제도인데 사실상 외국인이나 기관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다. 개인들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려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에다 높은 수수료, 짧은 대여 기간 등 조건이 불리해 사실상 이용하기 힘들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1.1%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붙은 개미들의 공매도 전쟁

요즘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반(反)공매도 운동이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에선 헤지펀드가 ‘게입스플’이란 종목을 공매도하자 로빈후드들이 풍채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결국 헤지펀드가 배기를 들었다. 공매도를 놓고 헤지펀드와 로빈후드가 벌이는 전쟁으로 급등락이 심해지자 미국 의회가 공매도를 점검하겠다고 나설 만큼 정치판에서 이슈화가 되기도 했다.

국내에선 3월 15일 재개를 앞둔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한 후 한 차례 연장해 다음달 재개할 예정인데 차제에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물론 공매도는 추가 거품을 방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렇지만 역기능이 워낙 많다. 주

가 하락 시기에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시세 조정 수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중화기 부대에 소총으로 맞아야 하는 개미들에겐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

제도 개선해 공정한 기회 제공을

공매도가 탄생한 배경을 봐도 개미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의 하나로 만들어졌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이용하는 개미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미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원인은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느 날 ‘벼락거저’가 됐다는 자조 섞인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자고 나면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는데, 은행 이자만으로는 노후를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개미들의 공매도 반대 운동을 보면서 3년 전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떠오르는 것은 예외일까.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젊은이들이 대거 몰렸던 이유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해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매매 기법이 허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무대였다는 얘기가.

정부가 지금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한다. 개미들의 요구처럼 폐지하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고 본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모토가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도 반영되길 희망한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김창균
광주예술고 교감

코로나19가 일상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된 지도 1년이 지났다. 고강도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병행된 공간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미증유의 일상 변화를 불러왔고, 계절이 바뀌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과 기대와 달리 불안과 초조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blue)’가 결합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분노(red)로 이어져 ‘코로나 레드’로 가더니, 이제는 회색조차 합쳐보이는 현실(black)을 마주하는 감정인 ‘코로나 블랙’까지 등장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에서 환한 동이 뜨기 전에는 반드시 철쭉 같은 어둠이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떠올리지만, 지난 연말의 위기감이 잦아들 무렵 다시 확산된 최근의 사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을 무겁게 한다. 조만간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등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코로나 종식을 기대할 만도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꼬리를 물고 감염력과 전파력이 강해지는 추세라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듯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일어서야 하

거리 두기와 간격 띄우기

는데, 자칫 마지막 남은 힘마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나마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버티낸 힘은 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등 이른바 3T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코로나 19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시민들의 성숙한 역량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거리’를 사전에서 찾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간격’으로 나온다. 또한 ‘거리를 두다’ 하면 공간적 거리보다는 정서적 거리, 즉 서로 마음을 트고 지낼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앞으로는 거리를 두지 말고 지내도록 하자’는 말처럼. 그러니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거리 두기’보다는 ‘간격 띄우기’가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상황과 모순되어 보이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우리 마음속은 어떠한까. 보건복지부가 아끼 상어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과 함께 제작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사랑하니까 거리는 멀리,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내 친구는 내가 지켜줘요. … 궁극할 땐 전화하기 보고할 땐 영상통화,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사랑하니까 마음은 가까이,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내 가족은 내가 지켜줘요.”

단군신화가 보여주듯 배달민족은 태초부터 자가 격리에 익숙하다는 유머는 고립 공포감을 뜻하는 현대사

회의 FOMO(fear of missing out) 신드롬이 우리와는 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거미줄 같은 복잡한 사회관계망 속에서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쫓기 바쁜 것이 현대 사회이다 보니, 지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SNS로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서 자신만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FOMO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 두기’라는 표현 속에 ‘간격은 띄우되 마음은 더 가까이’하는 배려와 정서적 친근감을 담아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안다. 모두의 고통과 아픔을 긍정 에너지로 승화하는 노력 뒤에는 많은 경제적 손실과 불편함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의 사적인 행위조차 타인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에, 공간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친구·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봄을 기다리는 시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오늘이다. 방역을 위한 실천에는 ‘나’가 중심에 있지 않다. 그러기에 ‘간격 띄우기’를 통한 혼자만의 세계를 우리는 거부한다. 도리어 정서적 거리감이 함축된 용어인 ‘거리 두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1차 대응행 당시 대구에서 사투를 벌였던 한 간호사의 호소가 배어 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곧 너이고, 네가 곧 나인 듯 서로를 지켜야 한다.”

광주 위생매립장 폐기물은 ‘도시 에너지 자원’

제사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시작된 양과동 위생매립장(총 조성 면적 64만 4159㎡)에는 북도재와 소각연소재를 제외한다면 매립 폐기물의 90% 이상이 비닐 등의 합성수지류, 화학성유류, 합성고무류의 가연성폐기물이므로 매립장에는 연탄공장에 공급되는 석탄보다 더 높은 발열량의 에너지 자원이 묻혀 있는 상태이다.

이 매립 폐기물을 파내어 토사류를 제거하는 1차 처리와 불연성 물질 제거의 2차 처리를 실시하면 일반적 인 소각장에 공급할 수 있는 고발열량의 연료, 고효율 연소로 전력과 열증기를 생산하는 도시 에너지 자원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년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로 관리될 수 있는 매립장을 제사용할 경우 자연환경 보전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합리적인 출구가 될 수 있다.

양과동 매립장에 설치되어있는 SRF선별시설을 2차 처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매립 폐기물의 도시에너지자원 활용에 큰 도움이 된다. 매립 폐기물을 파내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환경 문제는 악취 발생이지만, 음식 폐기물이 배제된 매립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미약해 바이오플터 기술로 충분히 처리할 있다. 이미 이러한 기술의 시설이 선별 가연성폐기물이 매립된 일곡지구 근린 공원에 소규모로 설치되어 악취 처리에 사용된 적이 있다.

소각장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나주 혁신도시의 소각장 운전이 지연되리라 예측하지 못했던 지난해에 상무신도시 소각장을 폐쇄한 것은 극히 아쉬우나, 이 상황에서 광주시는 매립 폐기물의 도시 에너지 자원화 즉 위생매립장

제사용의 틀에서 신규 소각장설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에 준공된 SRF 열병합발전소 소각 시설의 나주시와의 계약 사용 기간이 15년임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소각장 설치 추진은 빠르지 않다. 매립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과 선별된 매립 가연성폐기물을 함께 소각시키는 적정 규모의 소각장 설치와 운영은 광주시민에게 생활폐기물로 전력과 열증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친환경 행정인 만큼 환경부도 신규 소각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리라 판단된다.

생활폐기물 매립이 2004년도에 종료된 운영중 매립장(총 조성 면적 30만여㎡)은 10여 년 전에 도 건설사가 매립층 내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발전 시설을 운영하여 악취가 제거된 상태다. 이 매립장의 가연성폐기물도 선별 처리하여 도시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한다면, 광주시는 2개소의 위생매립장을 연계 사용함으로써 20~25년 단위로 2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양과동 위생매립장 규모)를 확보해야 되는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은 125년 이상 늦출 수 있다. 또 300만여 ㎡ 규모의 임야 또는 농경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연환경 보전의 생활폐기물 처리 행정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비닐류의 합성수지는 난분해성의 고분자 유기물질로서, 매립 상태에서는 오염과 이동이 수백 년간 진행되므로 재활용될 수 없는 조건의 합성수지류는 소각 처리가 현실적이다. 해변에 밀려드는 비닐 조각을 물고기로 알고 이따금 삼킨 하늘의 제왕 알바트로스가 소화기관이 막혀 죽는 채 발견됐다는 수년 전 외국 언론의 보도가 결코 다른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社說

들쭉날쭉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일원화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전남 도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기된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 민원은 모두 498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414건, 풍력이 84건으로 태양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으로는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271건)가 가장 많았고 생활권·건강권 침해(131건), 지가 하락 및 농작물 피해(84건), 홍수·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53건), 문화재 보존·보상 요구 등 기타 사항(6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민원이 빚발치는 배경으로는 소음이나 이격거리 등 발전 설비에 대한 통일된 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먼저 꼽힌다. 실제로 전남 22개 시군이 조례나 지침 등으로 규정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하다. 영암·장흥·강진군 등은 태양광·풍력 구분 없이 열 기구를 기준으로

이격거리가 100m(10호 미만)~500m(10호 이상)로 정해져 있다. 반면 영광은 500m~1km, 신안군은 1km~1.5km이다.

특히 화순의 경우 지난해 군의회가 당초 난개발을 막기 위해 1.5km~2km로 규정한 이격거리를 1년 만에 800m~1.2km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풍력 발전의 규제 기준을 일원화하는 덴마크·네덜란드·독일 등은 소음과 이격거리를 모든 지역에 한도치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발전 설비의 규제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과 사업 주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그제 오후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 임시국회 개최(1일)에 맞춰 특별법 제정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월 처음 열린 여순사건 재심에서도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정리하면서 정부에 권고까지 했다”며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따스한 봄을 답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다름 아닌 주당 152명의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동발의할 때까지는 곧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 입법공정화까지만 진행돼 지역민들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은 입법 공정화

를 거쳐 행위위 법안심사 소위의 안전으로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그동안 네 차례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광주·전남 의원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관련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은 모두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세월은 흘러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부분 80~90대의 고령에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달리 ‘삼한사미’(三寒四微) 현상이 초겨울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삼한사미’는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는 뜻이다. 한국의 전통적 겨울 날씨를 뜻하는 ‘삼한사온’(三寒四溫)에 빗댄 신조어다.

지난해에는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을 보인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맑은 공기를 잠시나마 마 되찾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공기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미세먼지는 정부의 근본적인 저감 대책이 우선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예방처럼 자발적인 실천과 함께 실내 온도 낮추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기, 자동차 공회전 하지 않기 등의 실천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중국에 예상 밖으로 빠르게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킨 이후 공황들이 다시 가동되면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겨울철 난방까지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과 달리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미세먼지 때문에

삼한사미(三寒四微)

이후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전 세계 각국이 ‘셔다운’에 들어가면서 국내외 오염물 배출 감소 등으로 잠시나마 대기질이 좋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요즘엔 한파가 며칠 계속되다가 기온이 오르면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오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축적된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중국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국내로 유입되면서 최악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